

# 바느레 국제안무대회와 리옹 댄스비에날을 통해서 본 한국현대무용의 비평적 수용

오 선 명

서울종합예술학교, 파리 V대학 박사

I. 서론	IV. 한국현대무용의 예술적 가치와 가능성
II. 바느레 국제 안무대회와 리옹 댄스 비에날을 중심으로	V. 결론
III. 유럽무대에서 한국현대무용의 비평적 수용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프랑스의 현대무용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늦게 출발했지만 눈부시게 발전을 해왔다. 이런 발전상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 정치적 상황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느레 국제 안무 대회(Les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 Saint-Denis)의 공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sup>1)</sup>

바느레 국제 안무대회는 늦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안에 프랑스 현대무용의 정체성으로 대변되었던 ‘누벨 당스(Nouvelle danse)’<sup>2)</sup>를 출현시킨 무대였다.

1969년부터 오늘날까지 바느레 국제 안무대회는 수많은 젊은 안무가와 무용수들의 안무창작작품을 선보이고 발굴하는 기회였다. 이 대회 출신인 마기 마랭(Maguy

1) 현재 Les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 Saint-Denis로 공식명칭이 바뀌었다.

2) 누벨 당스(Nouvelle Danse)는 ‘젊은 춤’ (Jeune danse)으로 호칭되면서 80년대를 전후로 나타난 프랑스 현대무용의 새로운 미학적 코드이며, 조류이다.

Marin), 장 끌로드 갈로타(Jean-Claude Galotta), 필립 데쿠필레(Philippe Decouflé), 마틸드 모니에(Mathide Monnier), 안젤랭 프렐조까주(Angelin Preljocaj) 등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안무센타(CCN: Centre Chorégraphiques Nationale)의 예술 감독들이 그들이다.

리옹 댄스비에날(La Biennale de la danse de Lyon)은 안무의 독특한 창작성과 관객보급을 위해 주제별 테마에 맞춰서 현대예술의 중심적 행사인 리옹 비에날과 함께 리옹도시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국제규모의 댄스 비에날이다.

한국의 현대무용은 유럽에서 최고수준의 안무대회라고 인정받는 프랑스 바놀레 무대에 1990년대와서야 진출했고, 2000년 리옹댄스비에날레에서 국제적 관심을 얻게 되었다. 한국현대무용은 1992년 유럽무대에서 선구자격인 안애순 무용단의 「씻김(Ssit-Kim)」, 1994년 안애순 무용단의 「여백(The Empty Space)」과 김원 무용단의 「Love, far away」, 1996년 이윤경 무용단의 「기우는 달(Warning Moon)」, 1998년 안애순 무용단의 「11번째 그림자(The 11th Shadow)」등이 차례로 등장하였다. 또한 리옹 댄스비에날에 초청되었던 현대무용 작품은 댄스씨어터 온의 「달보는 개(Moon Looking Dog)」, 「데자뷰(Déjà vu)」이다.

한국 현대무용가들의 안무는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유럽관객에게 가져다 주었다. 서양의 관점에서 유럽무대에 소개된 한국현대무용은 의식적 주제, 정신적 세계, 민속적이거나 종교적 음악들로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요소를 보였다. 동시에, 새로운 스타일창조를 시도하면서 동양의 현대적인 요소를 펼쳤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온 현대무용과 유럽관객들의 만남은 단지 서양문명의 '현대성'과 동양문명의 '전통성'의 양면적인 대립만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바놀레 국제안무대회와 리옹 댄스비에날을 통해서 유럽관객들은 한국현대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무엇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을 보였는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유럽관객들의 관점에 정체성화(Identification)된 한국현대무용에 대한 수용양상과 정체성(Identity) 규명의 필요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에서 한국현대무용의 수용 경향성의 분석을 통해서 21세기 한국 현대무용의 안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적 현대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국 현대무용의 예술적 가치를 진단하는 목적이다.

논의의 전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관객의 지각과 관련된 부분인데, 관객의 지각(perception)은 공연을 이해하고 또는 분석 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다. 프랑스의 현상학 학자인 메를로 폰티(Merleau-Ponty)는 ‘인간의 지각(perception)은 각각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관련이 있다고 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크게 일반적으로 서양과 동양의 사회 등), 직업, 성별 차이, 교육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sup>3)</sup> 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관객의 관점은 사회와 문화의 역사에 영향을 받은 ‘주체적인 시각적 감각의 행위’로서 구성이 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바느레 국제안무대회에 진출한 <안애순 무용단>의 작품과 리옹댄스비에날에 소개된 <댄스씨어터 온>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무용단의 안무작품에 대한 수용을 잡지, 신문, 책등을 통하여 분석한다. 두 대회를 통하여 7개의 작품이 선택되었는데, 90년대 이후로 아직까지 바느레 국제안무대회에 진출을 못하고 있는 한국현대무용의 현시점에서 앞서 선보인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리옹댄스비에날에 초청된 한국현대무용단은 선구자적 입장의 <댄스씨어터 온>의 작품이 적합한 분석대상이 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바느레 국제 안무 대회와 리옹 댄스비에날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7개의 작품만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는 점이다.

바느레 국제 안무 대회 같은 경우는 ‘안무콩쿨’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플랫폼(plat-forme)’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된 20여개의 다른 국적의 무용단들이 5-6일동안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심사위원이나 관객들은 많은 관심과 더불어 마라톤 같은 긴 여정에 인내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바느레 국제 안무 대회는 1988년부터 비에날의 형식 이었지만 2000년부터 매년 행해지는 연례행사로 그 양상과 특성이 조금 변화되었다.

(리옹 댄스비에날에 비해) 바느레 국제 안무 대회는 신문이나 무용전문 잡지가 수상작을 중심으로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90년대 한국현대무용에 대한 유럽 비평가들의 반응은 ‘사이런트 모드(silent mode)’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유럽에서 한국현대무용에 대한 논문이

3) M. Merleau-Ponty(1964). *Le Visibke et L' invisible* : (Gallimard), p.112.

전무함으로써 참고자료에 있어서 미간행 책, 잡지, 신문, 프로그램에 제한됨이 있다. 또한, <댄스씨어터 온>의 경우, 리옹댄스비에날에 최초로 출현한 한국현대무용 단임으로, 유럽에서의 한국현대무용에 대해 비평적 관점의 공통성을 이끌어내는 것에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현대무용의 유럽무대출현은 분명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으로 필요성을 가진다.

## II. 바놀레 국제안무대회와 리옹 댄스비에날을 중심으로

### 1. 바놀레 국제안무대회(Les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 Saint-Denis)

#### 가. 바놀레 안무대회의 개념과 목적

바놀레 안무대회는(공식 명칭은 Les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 Saint-Denis이다) 전 세계 무용예술가들의 경쟁의 무대이며, 협력의 무대이자 동시에 화합의 무대이다. 바놀레 국제안무대회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미래를 위한 발판이자 도약판 이었다.

「내일을 위한 발레(Ballet pour Demain)」라는 제목으로 1969년 자크 쇼랑(Jaque Chaurand)의<sup>4)</sup> 지휘 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바놀레 국제안무대회는 프랑스 현대무용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무콩쿨이며, 뉴벨 당스(Nouvelle Danse)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기 위한 무대였다.

바놀레 국제안무대회는 전 세계 플랫폼(plat-forme)에서 프랑스 생드니(Saint-Denis)무대까지 안무콩쿨형식을 띄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관적 예술적 표현이 중심인 현대안무예술분야에서 어떻게 우열을 가려서 선택할 수 있는가? 또한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4) 자크 쇼랑(Jaque Chaurand)은 파리 오페라 출신의 솔리스트로서,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순회공연후, 1968년부터 젊은 안무가와 무용수들을 위한 바놀레 콩쿨의 첫 디렉터가 되어 프랑스 현대무용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 *Les Saisons de la Danse* (1964), N° 258, juillet, p.46.

바느레 국제안무대회의 경우, 단지 안무가의 작품과 무용수들의 기량의 우위를 가리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들의 작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고, 젊은 재능을 발견하고, 창작 작업을 지원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무예술가들의 재능과 예술적, 테크닉적 특성에 의해 바느레 콩쿨은 그들을 선택하게 된다. 발레에 비해 ‘젊은 춤’으로 인용되었던 프랑스의 현대무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쟁이 기본이 되는 ‘콩쿨’이라는 무대를 만들게 된 것이다.

상징적으로 ‘파리 오페라의 나라 (Le Pays de l Opéra de Paris)’<sup>5)</sup>로 불릴 정도로 클래식 문화의 비대함은 60년대 발레에 비해 현대무용의 발전 속도와 문화정책 지원이 미약하기 그지없음을 말해준다. 소위 관객에게 인증 받지 못한 현대 무용가들은 공연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60년 말에서 70년 초, 프랑스의 현대무용 상황은 ‘결핍’과 ‘필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 교육, 무대장소, 젊은 무용단의 지원 그리고 창작된 작품의 보급, 결핍 등.

68년 5월 혁명은 프랑스의 사회 체제, 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단지 정치적 사회적 움직임뿐만 아니라, 언어, 사고, 행동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예술가들의 창작 작업에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문화적으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시기의 문화의 변화를 ‘누벨 바그(Nouvelle Vague)’로 부르면서, 이 정신은 무용에도 합류하게 된다.

80 년대의 프랑스 현대무용은 신랄함과 유머 그리고 새로운 정신을 가진 젊은 세대의 안무가들과 무용수들이 바느레 국제안무대회(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 Saint-Denis)라는 라벨(label)을 달고 나타나기 시작했다.<sup>6)</sup>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누벨 당스(Nouvelle danse)의 물결을 일으키게 된다. 거대한 발레의 현존은 프랑스 현대무용의 발전에 저지를 가져왔었지만, 클래식으로

5) Vincent Pradouart (1989), Essai d'un panorama du corps : *La danse, naissance du mouvement de pensée*, Armand Colin, p.53.

6) 그들은 19개의 국립안무센터-CCN(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에 예술감독들이 되었다. 도미니크 바구에(Domonique Bagouet), 레진 소피노(Régine Chopinot), 부비에 /오바디아(Bouvier), 마기 마랭(Maguy Marin), 장 끌로드 갈로타(Jean-Claude Galotta), 안젤랑 프레조까쥬(Angelin Preljocaj), 마틸드 모니에(Mathild Monnier), 에르베 호브(Hervé Robbe), 까린 사포타(Karine Sarpota), 까트린 디베르레(Catirine Diverrés)등등.

부터의 상속을 밀어내면서, 프랑스 현대무용은 자크 랑(Jacques Lang)문화부 장관의 임기기간동안 전폭적인 문화지원정책에 의해 프랑스 현대무용은 바야흐로 개화기를 맞게 된다.

궁극적으로 바놀레 콩쿨의 목적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그들의 창작 작업을 관객과 심사위원 앞에서 경쟁적 틀 안에서 공연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상을 탄 작품들은 국제적인 무대에 공연할 수 있게 보급의 역할도 바놀레 콩쿨의 몫이다. 바놀레 콩쿨의 이러한 개념은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국제안무대회의 역할을 하고 있고 선택의 기준은 바로 '창작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바놀레 국제안무대회는 젊은 안무가나 무용수들의 경험에 명성을 가져다주는 무대가 되었고, 프랑스 현대무용의 창작적인 분야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고 이렇게 1969년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창작적인 안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 나. '만남 (Rencontre)' 의 의미

바놀레 국제안무대회는 수많은 안무가, 무용수, 공동작업가(스텝)와 함께한 창작 작품을 선보이는 국제적 문화의 교류의 의미에서 '만남(Rencontre)'의 장소이다. 동시에 이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는 '보급'을 뜻하기도 한다. 안무예술가들 외에도 공연기획자, 극장관련자들의 만남으로 예술적으로 최고의 작품을 다시 발견하고 보급하는 선까지 이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바놀레 국제안무대회는 단순히 공연을 위한 장소만이 아니라, 안무예술의 국제적 무용마케팅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다.

현대의 안무예술은 정신적, 심리적 또는 사회에서의 여러 관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형태의 창작 작업이 표면화 된다. '현대무용은 이 시대의 생각의 움직임을 개인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미학적 변화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인간의 춤추는 몸은 단순히 예술적 표현의 도구를 넘어서, 사회의 경험과 현대문화의 반영이다. 춤추는 몸은 문화적, 사회적 차원과 개인의 감정과 감성을 표현한다. 1992년 바놀레 국제안무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상카이 주쿠(Sankai

7) Vincent Pradouart (1989), 앞의 책.

Juku)의 예술감독 유시오 아마가츠 (Ushio Amagatsu)는 ‘무용수는 정신적, 사회적,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예술적 프로세스와 안무 작품에서 존재한다.’ 라고 강조했다.<sup>8)</sup>

그 나라의 문화는 예술을 (특히 무용) 발전시키는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바놀레 콩쿨에 공연되어지는 작품들은 각 나라에 따라 창작성과 함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민족적이거나 그 나라의 민속적인 개념과 연계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나라와 문화의 관계는 민족적인 고유함과 새로운 예술적 형태를 만들어낸다.

## 2. 리옹 댄스비에날(La Biennale de la danse de Lyon)

2000년 비에날의 <실크로드(les Routes de la Soie)>의 테마를 통해서, 한국현대무용은 프랑스 리옹 국제댄스 비에날(La Biennale de la danse de Lyon)에 소개되는 기회를 가졌다.

첫 번째 리옹 국제 댄스비에날은 1984년 리옹 무용의 집(la Maison de la Danse à Lyon)에서 시작되었다. 리옹 댄스비에날은 오직 안무예술에 혜택을 주고, 관객에게 여러 무대의 공연작품을 소개하며, 무용공연을 집중하여 소개하는 무대이다.

이 비에날의 목적은 ‘무용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관객에게 예술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지표를 만들어주며 무용과 함께 음악, 연극, 조형미술도 동시에 변화발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sup>9)</sup>

1979년 발드 마른 댄스비에날(la Biennale Nationale de Danse du Val de Marne)에서 창작 작업에 영향을 받은, 이 리옹 댄스비에날은 테마를 통해서 매년 색다르게 실행된다.

연도별로 테마를 보면, 1984년 「세계 현대무용의 기원의 큰 흐름」, 1986년에서 1990년까지는 3가지 연결된 주제를 시리즈로 연결했다. 1986년 「표현주의자의 춤」

8) Johannes Odenthal (1991), *La danse dans le monde : Détails sensibles : des œuvres et des hommes*, p.27.

9) L' Historique des biennales de la danse dans le programme de Biennale Internationale de la Danse de Lyon 2000.

이란 주제로 마리 뷔그만(Mary Wigman)의 100년제에 대해 다루었고, 1988년에는 「프랑스 클래식 발레의 오마주(hommage)」를 통해서 프랑스에서 무대예술로 발전된 발레에 대해 관객에게 재인식 시켰다. 1990년에는 「아메리칸 스토리」로 미국 안무의 배경과 현상에 대해 다루었다.

1992년부터 테마는 나라에 대해, 대륙에 대해, 역사에 대해 방향이 전환되는데, 1992년 「스페인의 열정(Pasion de España)」, 1994년 「마마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할렘까지」에서는 재즈에서 현대무용까지 미국무용의 다양성에 대해 다루었다, 1996년 「브라질의 아쿠아(Aquarela do Brasil)」, 1998년 「지중해, Méditerranée」로 '축제와 대중'이라는 주제였으며, 2000년 「실크로드(Les route de la soie)」, 2002년 「라티나 테라(Terra Latina)」, 2004년 「유로파(Europa)」 그리고 2006년 「도시에서(Dans la ville)」 대한 테마이다.

### III. 유럽무대에서 한국현대무용의 비평적 수용

‘안무작품은 관객들이 지각 (perception)할 때 비로소 존재한다.’<sup>10)</sup>

한국현대무용은 1992년에 프랑스 바뇰레 국제안무대회에서 프랑스 및 유럽관객과의 만남을 가졌다. 바뇰레 국제안무대회의 공식명칭에 내포되어있는 ‘만남(Rencontres)’ 처럼 그것은 유럽피인 관객들의 눈에는 다른 이야기, 다른 색깔 다른 몸과의 만남이었다.

한국안무작품의 형태는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를 유럽관객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한국 안무 작품들이 단지 관객들의 민족학적인 관심이나 이국적인 취향으로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바뇰레 국제안무대회와 리옹 댄스비에날은 더 재능 있고 창작성을 지닌 컨템포러리(contemporary)의 형태를 갖춘 안무작을 선정하는 기준조건에 있다.

10) Christine Roquet, 프랑스 파리 vIII대학교 무용학과 안무분석 전공교수. 2001-2002 년학기 작품분석 세미나.



유럽관객들은 무엇을 보고 받아들였는가? 그것은 어떤 특별한 형태로 나타났는가? 바느레 국제안무대회와 리옹 댄스비에날을 통해서 한국현대무용에서 안무의 주요요소와 유럽관객이 지각한 비평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 1. 바느레 국제안무대회의 비평적 수용- 1992년, 1994년, 1996년 1998년 참가작품을 중심으로

##### 가. 정신적 차원

바느레 국제안무대회에 소개된 한국 안무작품들은 전통적이고 무속적인 제의식, 죽음, 환생, 한국의 여성성과 현대문명에서의 인간성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이러한 주제들은 한국의 정서나 동양의 정신적 차원에 적용되는데 기계나 물질주의가 중심인 서양문화에 익숙한 관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무용전문지와 신문을 통해서 본 유럽비평가들의 관점은 ‘정신성(spirituality)’, ‘불가해한(enigmatic)’, 인생의 순환이 강조된 테마에 주목하게 된다.

바느레 국제 안무대회에 두 번째로 참가한 안애순의 작품에서 ‘정신성(spirituality)은 매우 명백하게 나타나며 그것은 작품의 테마를 설명하고 있다.

Ae-Soon Ahn, qui est venue deux fois aux Rencontres, une spiritualité très présente et très apparente, explicite dans le thème de l'œuvre. (Eva Ibanez-Lago)<sup>11)</sup>

「기우는 달」은 오리엔탈 테마의 정신적인 아름다운 몽상을 가져다준다.

「The Waning Moon」 un beau quintet porté par une rêverie spirituelle sur un thème bien oriental. (Caroline Mendoza)<sup>12)</sup>

한국안무작품은 오리엔탈의 종교적 감정의 형태에 영감을 받은 의례를 불러일으키는 특성으로 유럽관객의 눈에는 고찰되었고 이것은 불가해한(enigmatic) 종교적 의식처럼 받아들여졌다.

11) Lorrina Niclas, Eva Ibanez-Lago(1995). *La Danse dans le Monde-IV<sup>es</sup>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Saint-Denis*, Les Belles Lettres, p.38.

12) *Les Saisons de la Danse*(1996), N° 283, Août, p. 18.

「씻김」- 불가해한 의례, 신성한 기원과 신의 존재를 명백히 보여준다.

「Ssit-Kim」- Une cérémonie énigmatique, où les sources du sacré [affleurent] et qui force à l'évidence, dans sa limpidité, la présence des dieux. (Isabelle Ginot)<sup>13)</sup>

「여백」은 미스터리한 주제이며 유럽관객들은 그것을 전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The Empty Space) C'est un thème mystérieux qui ne peut être entièrement compris par un public européen. (Ulrike Becker)<sup>14)</sup>

「여백」- 죽음, 그리움, 고독과 소멸에서의 환생에 대한 문제이다.

「The Empty Space」- Il est question de mort, d'exil, de solitude et de renaissance au néant. (Ulrike Becker)<sup>15)</sup>

이러한 인생순환의 표현은 현실-비현실, 이승-저승 두 다른 세계를 그대로 들어 내 보인다.

「여백」- 영혼들이 서로 말하는 장례의 이곳, 그렇게 두 세계를 떠돌아다닌다.

「The Empty Space」- Nous errons ainsi dans l'entre deux mondes, ce lieu funéraire où seules les âmes se parlent. (Lorrina Niclas)<sup>16)</sup>

## 나. 전통과 현대의 차원

비올레 국제안무대회에 소개된 한국 안무작품에 대한 비평적 수용은 한국의 전통적 차원과 서양의 현대적 차원의 사이에서 공존한다고 논의된다.

「11번째 그림자」- 전통이 강하게 강조된 (...), (안애순) 그녀의 공연은 문화의 선입견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문화의 선입견은 관객들에게 그녀 작품의 현대성의 차원을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The 11th Shadow」 Fortement marquée par la tradition, (...) ses spectacles (Ae-Soon AHN) ne doivent pas être regardés avec des

13) Isabelle Ginot(1993). *La Danse dans le Monde - III<sup>es</sup>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Bagnolet*, Armand Colin, p.69.

14) Ulrike Becker, *Ballet International - Tanzaktuel*

15) Ulrike Becker, *Ballet International - Tanzaktuel*

16) Lorrina Niclas, Eva Ibanez-Lago(1995). *Histoires Volées : cheminements d'une perception* » in *La danse dans le monde -IV<sup>es</sup>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Saint-Denis*, Les Belles Lettres, p.17.

préjugés culturels qui empêcheraient le spectateur de saisir la dimension profondément moderne de ses recherches. (Marie-Florence Ehret)<sup>17)</sup>

「여백」 -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의 리듬과 함께 클래식 테크닉이 기본이 된 현대적 움직임들을 본다.

「The Empty Space」-Nous assistons à des mouvements modernes basés sur des techniques classiques avec un tempo de musique ethnique coréenne. (Marda Tadash)<sup>18)</sup>

「여백」 - 전통과 현대성에서 더욱 더 본연의 형태로 현실화 된다.

「The Empty Space」 - C'est réaliser de la façon la plus authentique le couple de la tradition et de la modernité. (Lorrina Niclas)<sup>19)</sup>

한국 안무작품을 보면, 두 다른 영역의 조화와 융합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무표현의 현대적 형태의 사용과 문화적으로 창작자의 본연의 작업이 그것이다.

「씻김」 - 한국의 전통적 차원과 서양에서 잘 알려진 안무형태의 놀라운 융합을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전통과 현대의 상호적 재인식, 다르지만 분명히 고유한 안무형태를 나타낸다.

「Ssit-Kim」 - On voit la fusion aussi surprenante de formes chorégraphiques reconnues comme occidentales, avec un univers traditionnel coréen, donnant la sensation paradoxale non pas de l'utilisation d'un langage occidental pour un propos lié à la tradition orientale, mais plutôt, de reconnaissance mutuelle des deux traditions, au-delà des différences formelles, comme un sorte d'évidence originelle. (Isabelle Ginot)<sup>20)</sup>

한국인들은 서양의 컨템포러리의 작업의 형태에 영감을 얻었지만 그들의 것으로 만들어 냈다.

17) Marie-Florence Ehret(1999). *Battre l'air noir : La danse dans le monde - VI<sup>es</sup>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Saint-Denis*, Les Belles Lettres, p.40.

18) Marda Tadash(1998). *Assortiment critique sur les travaux d'Ahn* » in Programme de *The 11th Shadow*.

19) Lorrina Niclas(1995). 앞의 책, p.5.

20) Isabelle Ginot(1993). 「Ssit-Kim」 : la nourriture sacrée » in *La danse dans le monde : III<sup>es</sup>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Bagnolet*, Armand Colin, p.69.

Les Coréens s'inspirent des formes de la recherche contemporaine occidentale mais la font leur (Lorrina Niclas)<sup>21)</sup>

#### 다. 움직임의 차원

한국무용수들의 움직임의 기교는 그들의 집중된 에너지와 함께 유럽 관객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게 된다

위험한 자세와 격렬하게 어려운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안애순 무용단)의 엄청난 에너지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

J'ai été époustoufflé par l'énorme énergie d'Ahn pour créer des positions fortement dangereuses et des mouvements difficiles. (Maeda Tadash)<sup>22)</sup>

한국무용수들의 '정교하고 가끔은 수수께끼 같은 제스처'는<sup>23)</sup> 세심하고 테크닉적인 구성을 나타낸다.

「11번째 그림자」 - 무용수들에 의해 연속되어진 아크로바틱한 구성은 전통적인 서커스의 행위보다 더 기하학적이고 섬세한 건축학적인 미를 지닌다.

「The 11th Shadow」 - Les compositions acrobatiques qu'enchaînent les danseurs ont l'architecture subtile d'un rêve bien plus que la géométrie des performances de cirque traditionnel qu'elles évoquent. (Marie-Florence Ehret)<sup>24)</sup>

무용수들의 내면세계는 몸을 통하여 표현되고 그 집중력은 그것을 증명한다. 움직임의 부동(不動)은 정지를 통해서, 느림을 통해서,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표현한다.

L'immobilité (du mouvement) est générée et soutenue par des haltes, des champs de lenteur, une sorte d'éclairage métaphysique. (Hubert Haddaad)<sup>25)</sup>

21) Lorrina Niclas(1995). 앞의 책, p.6.

22) Maeda Tadash(1998). 앞의 책.

23) *Les Saisons de la Danse*, Caroline Mendoza, N° 283, Août, 1996, p. 18.

24) Marie-Florence Ehret(1999). 앞의 책, p.40.

25) Hubert Haddaad, « La danse en dix-neuf mondes et quelques recoupements » in *V<sup>es</sup>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Saint-Denis*, Les Belles Lettres, 1997, p.48.

「11번째 그림자」 - 6명의 무용수들의 삶과 뼈는 느리게 매우 느리게 깨우는 동안 그림자들은 극장의 하늘에 윤곽을 그린다.

Les six danseurs de chair et d'os s'éveillent lentement, très lentement tandis que les ombres se profilent dans le ciel de théâtre. (Marie-Florence Ehret)<sup>26)</sup>

바느레 국제 안무대회에 소개된 한국현대무용에 대해 유럽비평가들이 주목한 관점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정신성 (Spirituality)
- 현대성과 전통
- 탁월한 기량 (Virtuosity)과 내면성 (Interiority)

바느레 국제안무대회에서의 한국현대무용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거나 신랄하지는 않지만 무관심하지도 않다. 그러나 유럽비평가들의 관점은 서양문명의 현대성과 동양문명의 전통에 대한 대립된 형상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그들은 한국현대무용을 '크리에이터 (Creator)'의 춤으로, 무용으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 라. 무용수 연기력의 가치

‘무용수는 움직이는 영혼이다.’ (Martin, C)<sup>27)</sup>

공연예술에서 무용수의 존재와 연기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특히 공연예술 중에서 무용은 무대 위에서 무용수에 따라 관객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다르다 할 수 있다.

한국무용수들은 ADAMI<sup>28)</sup>에서 주는 연기상을 두 번이나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1994년 안애순 작품의 「여백」에 출현했던 8명의 무용수들이고, 두 번째는 1996년 이윤경 작품 「기우는 달」에 출현했던 남성무용수이다.<sup>29)</sup> ADAMI의 연기상은 바

26) Marie-Florence Ehret(1999). 앞의 책, p. 38.

27) Christophe Martin(1994). *Les Saisons de la Danse*, N° 258, juillet, p.49.

28) ADAMI(Société pour l'Administration des droits des artistes et musiciens interprètes.)

29) 94년 「여백」에 출현했던 8명의 무용수들은 이윤경, 장은정, 변옥연, 최혜정, 정정아, 정광국, 변소정, 김양선이며, 96년 「기우는 달」에 출현했던 남성무용수 주재만이다.

놀레 국제안무대회에서 한국 현대무용수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상징적인 것이다.

‘한국문화에서, 무용수의 개성은 테크닉 위주의 고찰로 인해 많이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Marie-Florence Ehret 그녀의 글에서 밝힌다.<sup>30)</sup> 한국, 초기의 현대무용 시기의 교육은 스승에게 사사받는 형태의 테크닉에 집중된 개인적인 방법론이었다. 1960년대부터 대학의 무용학과가 증설되고 창작 작업의 증가로, 무용교육은 실기수업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무가들은 점점 더 무용수의 개성, 태도, 조건 등을 고려하게 된다.

바놀레 국제안무대회의 콩쿠르 성향의 경쟁적인 특성 때문에, 안무가들은 최고의 실력과 테크닉을 가진 무용수들을 선택하게 되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으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무용수의 연기는 안무에서 미묘하고 섬세한 부분을 표현하고 무용수의 몸은 공간에서 형태를 만드는 창작자의 예술적 도구로 사용된다. 1994년에 「Love, far away」로 바놀레 국제안무대회에 참가했던 김원은 ‘나는 그들에게 (무용수) 각자의 캐릭터를 찾게 도와줄 뿐이다.’라고 말한다. 안무가들은 프로세스(process)하는 창작 작업 안에서 (무용수) 그들의 본연의 테크닉, 그들의 감성과 캐릭터를 일깨워준다.

한국무용수들은 탁월한 그들의 재능을 전통의 영향과 서양문화의 영향을 내포하면서, 한국현대무용이라는 이름으로 바놀레 국제 안무대회 무대에서 표현했다.

## 2. 리옹 댄스비에날의 비평적 수용

2000년, 제9회 리옹 댄스비에날은 동양, 서양, 아시아, 유럽을 잇는 길 「실크로드」를 주제로 일본, 중국, 한국, 태국 등 다양한 아시아 무용과 아시아 현대무용에 대해 초점을 맞춘 해였다. 태국의 클라우드 게이트(Cloud Gate)무용단, 일본의 이토 김(Itoh Kim), 베이징 현대무용단과 함께 〈댄스씨어터 온〉과 〈창무회〉의 안무작품이 선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무용단인 〈댄스씨어터 온〉의 경우를 예로 들어 유럽피인 관객들의 비평적 수용을 논하고자 한다.

30) Marie-Florence Ehret(1999). 앞의 책, p.40.

### 가. 기(氣, Ki)의 예술

〈댄스씨어터 온〉은 근본적인 기(氣, Ki)의 움직임의 작업에 집중한 개념에 대해 아시아적, 현대적 표현으로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기(氣)의 개념은 한국 무용에서 기본개념으로써 무용수는 춤추는 몸에서 기를 발산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하며, 한국 춤에서, 기(에너지)는 시간과 공간과 함께 무용에서 근본적인 요소이다.

「달보는 개」- 합기도를 비롯한 동양의 여러 훈련종목에서 볼 수 있으며, 움직임의 중심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기(氣, Ki)를 심도있게 다룬 작품이다.

「Moon Looking Dog」, une pièce centrée sur le Ki, l'énergie au coeur du mouvement au centre de tout, utilisée dans diverses disciplines asiatiques comme le HaïKiDo (Agnès Benoist)<sup>31)</sup>

‘본질적인 움직임’ 찾기의 중심적 개념인 ‘기(氣)’ 주변에서 형성되고, 다양한 장면들로 구성된 「달보는 개」는 많은 시선을 끌었다.

Construit autour de la notion centrale de recherche de mouvement essentiel 'ki' (énergie), et composé de différentes saynètes, Moon-Looking Dog est fascinant à de nombreux égards. (Isabelle Etienne)<sup>32)</sup>

‘기(氣, Ki)’ 〈댄스씨어터 온〉의 두 작품에서 바로 당신들이 발견해야 할 것이다.

'Ki', A vous de le découvrir, avec deux pièces du Dance Theatre On (F.C)<sup>33)</sup>

〈댄스씨어터 온〉의 안무작품은 기(氣)와 같은 근본적인 움직임과 자연스럽고 독특하게 즉흥으로 된 움직임이 기본이 된 공간의 구성에 집중된다. 안무가 홍승엽은 안무 작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기(氣)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홍승엽 인터뷰) ‘기(氣, Ki)’는 모든 사람에게 순환하지만 때로는 넘치거나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일수도 있다. 무용수는 내면적, 외면적 균형을 찾고 그것은 미학적 움직임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 균형 상태는 물속에 들어있는 물체와 비교 될 수 있다. 즉, 바닥에 가라 앉지도, 물위에 떠있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31) Agnès Benoist(2000). *Lyon Figaro*, lundi 11 septembre.

32) Isabelle Etienne(2000). *Les Saisons de la danse*, N 334, Novembre.

33) F.C(2000), *Le Progrès*, 9 septembre.

Le 'ki' circule en nous tous : parfois nous en avons trop, parfois pas assez. Parfois elle est négative, parfois positive. En tant que danseur, il faut rechercher l'équilibre, qui va rendre les mouvements plus esthétiques. Cette balance intérieure est comparable à un objet qui tombe dans l'eau mais qui resterait en suspens. Il ne se trouve ni à la surface, ni au fond. (Anna Hohler)<sup>34)</sup>

## 나. 유사성

〈댄스씨어터 온〉의 안무 작업을 서양의 안무가와 비교하자면 윌리엄 포사이트 (William Forsythe)의 세계와 접근성을 찾아볼 수가 있다.

댄스씨어터 온의 세계는 윌리엄 포사이트와 확연하게 흡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교한 다리 동작의 실력, 팔 뒤꿈치에 유도되는 팔 동작, 빠른 움직임 등은 놀랍다. 최선을 다한 훈련은 아연 질색할 정도의 가벼움을 연출한다.

Comme lui (William Forsythe), son mouvement demande des jambes solides, ses bras semblent guidés par les coudes et la vitesse d'exécution est impressionnante. (Agnès Benoist)<sup>35)</sup>

유사성에 있어서 안무가는 '그의 (포사이트(Forsythe)) 작업은 우리의 것과 흡사하다. '라고 하며, 이것은 윌리엄 포사이트의 발레 테크닉에 기반을 둔 초기 작업을 일컫는다. '그의 작품 비디오를 보았을 때, 나는 그도 '기(氣)'에 대해 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na Holher)<sup>36)</sup>

(기 다르메 - Guy Darnet, 리옹 댄스비에날 감독) 〈댄스씨어터 온〉의 무용수들은 매우 독특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다. 만일 굳이 홍승엽의 안무스 타일을 서양의 안무가와 비교를 한다면 윌리엄 포사이트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안무가, 홍승엽 또한 미국태생의 천재 안무가, 포사이트의 안무 성향과 유사성을 발견했다고 지적하였다.

(Guy DARMET, directeur de la Biennale de danse de Lyon raconte)  
Il savaient une façon de bouger tellement particulière que j'ai été enthousiasmé. S'il fallait comparer le style chorégraphique de

34) Anna Hohler(2000). *Le Temps*, 12 septembre

35) Agnès Benoist(2000). 앞의 책.

36) Anna Hohler(2000). *Le Temps*, 12 septembre



Sung-Yop Hong à celui d'un occidental, ce serait à William Forsythe. (F.C)<sup>37)</sup>

수학적인 엄격함을 보여주는 안무기술과 무용수들의 긴장한 연기력은 포사이드(Forsythe)를 상상하게 한다.

On songe quelquefois à Forsythe pour la rigueur quasi mathématique de l'écriture chorégraphique et l'interprétation athlétique des danseurs. (Isabelle Etienne)<sup>38)</sup>

순수한 에너지 (기,氣)와 여러 곳에서 보여지는 흐뭇한 미소. 우리는 포사이드(Forsythe)를 상기한다.

On pense à Forsythe, à un Petronio de bruit et de fureur, à de la géométrie, un uppercut, une version techno de 'Metropolis'. (David S. Tran)<sup>39)</sup>

#### 다. 움직임의 차원

과감하게 앞선 장르를 보여준 <댄스씨어터 온>은 한국 현대무용의 새로운 스타일 창조를 시도한다. “달보는 개”와 “데자뷰(Déjà vu)”는 유럽관객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전혀 공개되지 않은 테크닉을 리옹 댄스비에날 무대에 선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댄스씨어터 온과 함께 비에날레의 관객들은 '발견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유머가 내포되어 있는 순수한 움직임만으로 구성된 무용에 대한 갈망의 불길이 다시 되살아났다.

Avec le Dance Theater On, le spectateur de la Biennale a pu ressentir le plaisir de la découverte; voire raviver la flamme du désir pour une danse de pur mouvement qui sait flirter avec l'humour. (Agnès Benoist)<sup>40)</sup>

각 움직임의 연결부분은 아직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표현방법을 연출한다. 날카로운 제스처어들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상체가 만들어내는 기묘한 파동과 최면상태에 발걸음과 함께 어우러진다.

37) F.C(2000). 앞의 책

38) Isabelle Etienne(2000). 앞의 책

39) David S. Tran(2000). *Le progrès*, 11 septembre

40) Agnès Benoist(2000). 앞의 책

A l'affut du mouvement, il lui joue des tours inédits. Les gestes tranchants s'arrondissent quand on s'y attend le moins en d'étranges ondulations de buste, en marches somnambuliques. (Agnès Benoist)<sup>41)</sup>

여자무용수들의 기계적인 신체 움직임들은 신경을 자극하기도, 선율이 가미되기도 하는 음악이 만들어 내는 경악스러운 금속성의 액센트와 더불어 어우러진다.

Les corps mécaniques, surtout des femmes, sont réglés sur les accents industriels de la bande sonore, à la fois éreintante et mélodieuse, en tout point époustouflante. (David S. Tran)<sup>42)</sup>

〈댄스씨어터 온〉의 주요한 춤의 언어는 클래식 발레와 현대무용의 테크닉에서 영감을 얻어왔다. “데자뷰(Déjà vu)”는 시간의 영속성을 연상시키고 우아한 움직임에 대해 작용한다.

「달보는 개」 - 느리면서 발작적이고 혹은 기교적인 움직임들은 걸음걸이, 바닥동작 혹은 도약에서도 한결같은 숨씨가 스며들어있다. 무용수들의 몸들은 기계적이면서 동시에 관능적이다. 상반신의 파동은 날카로운 다리와 팔의 움직임과는 대조를 이룬다.

「Moon-Looking Dog」 - Les mouvements, qu'ils soient lents, saccadés ou virtuoses, qu'ils s'inscrivent dans les marches, les passages au sol ou les sauts, appellent la même maîtrise. Les corps sont à la fois mécaniques et sensuels. Ondulations des bustes contrastent avec mouvements acérés de jambes ou de bras. (Isabelle Etienne)<sup>43)</sup>

기계처럼 움직이는 무용수들의 신체는 불안한 느낌의 음악이 만들어내는 금속성 액센트 위에 세밀하게 계산되어 결합되어진다.

Les corps des danseurs, comme mécaniques, sont minutieusement réglés sur les accents industriels d'une musique angoissante. (Anna Hohler)<sup>44)</sup>

41) Agnès Benoist(2000). 앞의 책

42) David S. Tran(2000). 앞의 책

43) Isabelle Etienne(2000). 앞의 책

44) Anna Hohler(2000). 앞의 책

## IV. 한국현대무용의 예술적 가치와 가능성

바느레 국제안무대회에서 소개된 안무작품은 한국화된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리옹댄스비에날은 한국화 작업에서는 벗어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국외에 소개된 한국안무가의 작품은 대부분 한국화 성향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 현대무용에서 ‘한국적인 것’ (꼭 동양적인 주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을 끊임없이 논하는 자체는 아직도 한국현대무용의 정체성이 완전히 구현되지 못한 것인가?

〈표 1〉

대회명칭	바느레 국제안무대회 (Les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 Saint-Denis)	리옹 댄스비에날 (La Biennale de la danse de Lyon)
형식	안무콩쿨형식에서 Festival형식으로 전환	비에날레(Biennale)의 Festival형식
시작연도	1969년	1979년
장소	MC93극장을 메인으로 10개의 극장에서 이루어짐 -파리근교	리옹 메종 드라 당스(Maison de la Danse de Lyon) -리옹도시
성격	국제현대무용 안무창작 중심	테마에 따른 국제무용제 형식
선정방법	전 세계 플랫폼(Plat-Forme)에서 선택된 현대무용단의 독창적인 창작 작품위주	2년마다 다양한 테마의 적합한 무용단의 작품
특징	독창성(originality)과 창의성(creativity)에 중점을 두며 젊은 안무가들과 무용수들에게 국제무대의 기회를 주는 무대.	다양한 테마를 중심으로 기성안무가 위주로 Festival 프로그램이 결정. 리옹비에날에 이어 무용을 활성화 하는 방안의 댄스비에날.
참가연도와 무용단	1992년-안애순 무용단 「씻김」 1994년-안애순 무용단 「여백」 김원 무용단 「Love, Far away」 1996년-이윤경 무용단 「기우는 달」 1998년-안애순 무용단 「11번째 그림자」	2000년-댄스씨어터 온 「달보는 개」, 「데자 뷰」
수용비평 성향	- 정신성 (Spirituality)이 중심이 된 공통적 테마 - 현대성과 전통 : 동, 서양의 융합 - 탁월한 기량 (Virtuosity)과 내면성 (Interiority)의 표출	- 기(氣)가 중심이 된 움직임의 가치 - 구성방식에 있어서 서양안무가와와의 유사성 - 새로운 표현방식에 대한 발견

현대무용의 특성상, 서구의 (미국, 유럽 예외로 일본 등) 경향과 흐름에 영향을 받아왔지만, 그동안 한국 현대무용을 존속시키고 가치 있게 한 것은 아마도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에서 기억된 '신체(몸)의 역사'의 표현이다.

그 나라의 문화의 가치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 즉 고유성과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세계화 염원의 연장선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것', '한국적인 것'의 강조로, 즉 '한국화' 경향의 작품들이 국제무대에 선보이게 되었다. 과연 '한국화' 경향이 짙은 작품은 서구의 작품들과 비등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더 많은 자료와 사례로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요구된다.

'한국화' 경향의 작품은 국제무대에서(특히 유럽) 색다른 문화의 시각으로 흥미와 관심을 모으는 건 사실이다. 안무 작품이 국제무대에 오르는 기회를 가질 때, 물론 주최 측의 선호도를 감안하고, 독창적인 '한국적인 것'과 세계화 무대에서 고유성을 가지고자 하는 염원으로, 한국 현대무용은 '한국화' 경향이 짙은 작품을 공연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정신이나 정서와 같은 소재나 주제뿐만 아니라, 표현양식(움직임의 어휘와 안무구조)의 독창성, 특수성이야 말로 한국 현대무용의 가치와 정체성을 부여하고 한국적인 것 자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 V. 결 론

비올레 국제안무대회와 리옹 댄스비에날은 전세계 현대안무예술가들의 만남의 무대이다. 프랑스의 두 무대를 통해서 나타난 한국현대무용에 대한 비평적 수용은 개인적 창작성과 동양과 서양의 양면성을 포함한 안무형태를 표현한다.

'공연예술에서 안무 작품들은 항상 혼자만의 해석놀이에 의한 것이 아닌, 관객의 이해, 인식, 지각에 의해서 다시 쓰이는 것이다.'<sup>45)</sup> 안무 작품과 관객의 지각사이에

45) Michel Bernard(2001). *De la création chorégraphique*, Centre national de la danse, p 213.

미셸 베르나르(Michel Bernard)는 철학가이며 파리8 대학 무용학과 개설자이며, 교수로써 안무와 연극미학을 가르쳤으며, 지금은 명예 교수로 많은 무용미학에 대한 저서를 남겼다.

는 연관이 있고 그것은 관객의 창작적인 관점을 구성하며, 동시에 관객에 의해 그 공연에서 안무작품의 정체성화(Identification)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느레 국제안무대회와 리옹 댄스비에날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한국현대무용은 서로 다른 특징을 유추해낸다.

바느레 국제안무대회에서 한국현대무용은 한국인의 정서가 내재된 현대무용과 전통모드의 융합을 나타냈다. 전통모드는 전통무용과 음악의 요소, 무속적인, 불교적인 사상과 한국인의 내재된 행동의 표현을 포함한다. 정신성과 내면적 요소와 불가해한 요소를 지닌 주제와 정.중.동의 움직임의 미학은 상징적인 차원으로 유럽관객과의 만남이었다.

리옹 댄스비에날에서의 한국현대무용은 앞선 한국의 안무 작품들과는 다른 성향을 보이면서,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 사상과 내면의 표현을 반영했다. 이것은 오늘날 젊은 안무가 세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 성향으로 현대의 삶의 경험과 간섭을 통해서 확립되었다. 극히 개인적인 안무테마, 고유한 움직임, 다른 예술과의 공동 작업은 작품을 통해서 안무가의 자의식을 반영한다.

예술은 문화의 환경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바느레 국제안무대회와 리옹 댄스비에날에서 소개되었던 한국현대무용의 비평적 수용은 전통과 현대, 동양(한국의 뿌리)과 서양, 창작적 개성과 보편성 사이에서 양면성으로 구성되었다.

현대무용은 과정이 진행한다는 그 특성 때문에 굉장히 넓은 틀을 가지고 있다. 그 긴 세월만큼이나 진행된 모습대로 역사적(연대별이나 세대별로)으로, 미학적 성장, 발전, 변화를 거듭나고 있다. 한국현대무용도 경쟁력 있는 작품의 인정과 가치를 높여야 국제무대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태원(2001). 『예술춤의 중심과 주변』 : 평론집 IV 1997-2000 서울: 현대미술사.  
 M. Merleau-Ponty(1964). *Le Visibke et L'invisible*, Gallimard.  
 Michel Bernard(2001). *De la création chorégraphique*, Centre national de la danse.

Vincent Pradouart(1989). *Essai d'un panorama du corps: La danse, naissance dun mouvement de pensée*, Armand Colin.

*La danse dans le monde: XXes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Bagnolet : Seine Saint-Denis* (1991). Armand Colin.

*La danse dans le monde: IIIes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Bagnolet* (1993). Armand Colin.

*La danse dans le monde, IVes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 Saint-Denis* (1995). Les Belles Lettres.

*La danse dans le monde, Ves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 Saint-Denis* (1997). Les Belles Lettres.

*La danse dans le monde, VIes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 Saint-Denis* (1999). Les Belles Lettres.

L'Historique des biennales de la danse dans le programme de Biennale Internationale de la Danse de Lyon 2000.

*Art presse : Les année danse*, hors série n°8, 3e trim 1987.

*Les Saisons de la Danse*, N° 237, juillet / août 1992.

N° 258, juillet 1994.

N° 259, août 1994.

N° 283, août 1996.

N° 306, juillet 1998.

*Le Monde* 4 avril 1976.

21 janvier 1977.

14 et 15 juin 1992.

16 juin 1992.

21 juin 1994.

18 juin 1996.

*Libération* 12 juin 1992

16 juin 1992.

12 juin 1994.

*L'Humanité* 28 mars 1972

1er mars 1976.

Programme de The Empty Space d'Ae-SoonAHN, 1994.

Programme de The 11th Shadow d'Ae-SoonAHN, 1998.

Programme de plate-formes à Séoul, 1994, 1996 et 1998.

LEE Jong-Ho, Won Kim, la recherche de l'harmonie, programme de *Love, far away*,

18 juin 1994.

*Les Saisons de la Danse* N° 334, novembre 2000.*Le Progrès* 9 septembre 2000.*Le Progrès* 11 septembre 2000.*Lyon Figaro* 11 septembre 2000.*Le Temps* 12 septembre 2000.

- 비디오 자료 -

안애순 「씻김」(1992), 28분

「여백」(1994), 25분

「11번째 그림자」(1998), 30분

김 원 「*Love, far away*」(1994), 22분

이윤경 「기우는 달」(1996), 25분

댄스씨어터 온 「달보는 개」(1999), 28분

「데자 뷰」(2000), 45분

- 인터뷰 -

안애순 2001년 7월17일

김 원 2001년 7월20일

홍승엽 2006년 1월2일

논문투고일 2008년 6월 28일

심사일 7월 3일

심사완료일 7월 20일

## 〈부 록〉

**1992년 바뇰레 국제안무대회**(III<sup>es</sup>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Bagnolet 1992.)1992년 6월13일

- 무용단 : 한국 컨템포러리 무용단 (안무. 안애순)  
 나라 : 한국  
 작품제목 : 「씻김」 (1992년 4월10일 서울에서 초연)  
 카테고리 : 내셔널 셀렉션  
 소요시간 : 28분  
 창작날짜, 장소 : 1992년 4월10일, 서울  
 출연자 : 김 원, 이윤경, 김양선, 이연수, 윤미정, 박소정, 최두혁, 김성한,  
 이종철, 황덕재  
 음악 (녹음) : 김지옥 〈씻김〉  
 조명 : 이상봉  
 의상 : 선미수  
 무대 : 정은경  
 후원 : 문화예술관광부,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서울시

**1994년 바뇰레 국제안무대회**(IV<sup>es</sup>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Bagnolet Seine-Saint-Denis 1994.)1994년 6월15일

- 무용단 : 안애순 무용단  
 나라 : 한국  
 작품제목 : 「여백」 (1994년 2월27일 서울플랫폼 참가작)  
 카테고리 : 내셔널 프로페셔널 셀렉션  
 소요시간 : 25분  
 창작날짜, 장소 : 1994년 2월, 세종문화회관 (서울)



출연자 : 이윤경, 장은정, 최혜정, 정정아, 종광국, 변옥련, 박소정, 김양선  
 조안무 : 황동건  
 조명 : 최형호  
 의상 : 선미수  
 무대 : 이태섭  
 음악 : 김기영  
 후원 : 문화예술관광부, 한국문화원

1994년 6월18일

무용단 : 김원무용단  
 나라 : 한국  
 작품제목 : 「Love, far away」 (1994dud 2월26일, 서울플랫폼 참가작)  
 카테고리 : 개인 안무가  
 소요시간 : 22분

창작날짜, 장소 : 1993년 9월4일, 바탕골 예술극장  
 출연자 : 김 원, 김희진, 김현영, 박현령, 윤명희  
 조안무 : 이해희  
 음악(녹음) : 최상화  
 목소리 : 안숙선  
 조명 : 황두진  
 의상 : 선미수  
 무대 : 김종기

**1996년 바느레 국제안무대회**

(V<sup>es</sup>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Saint-Denis 1996)

1996년 6월16일

무용단 : 이윤경 무용단  
 나라 : 한국  
 작품제목 : 「기우는 달」 (1996년 3월12-13일, 서울플랫폼 참가작)

카테고리 : 젊은 안무가 (내셔널 셀렉션 자격)  
 소요시간 : 25분  
 창작날짜, 장소 : 1995년 5월29일, 육완순 무용원  
 출연자 : 이윤경, 김희진, 최혜경, 주재만, 류석훈  
 조안무 : 이해희  
 음악(녹음) : 힌동건  
 조명 : 황두진  
 의상 : 선미수  
 무대 : 김종기

#### 1998년 바느레 국제안무대회

(VI<sup>es</sup>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Saint-Denis 1998.)

무용단 : 안애순 무용단  
 나라 : 한국  
 작품제목 : 「11번째 그림자」 (1998년 2월19일 서울플랫폼 참가작)  
 카테고리 : 내셔널 프로페셔널 셀렉션  
 소요시간 : 30분  
 창작날짜, 장소 : 1998년 2월19일  
 출연자 : 이윤경, 박소정, 류석훈, 최혜경, 정정아, 정왕수  
 인형놀이 : 박영혜, 강미정, 이춘경, 이후정  
 조안무 : 황동건  
 조명 : 최형호  
 의상 : 선미수  
 무대 : 신선희, 김종숙  
 음악 (녹음) : 화정 (전통불교음악과 사물 (연주. 박영기)  
 후원 : 문화관광부, 현대무용진흥회

#### 9회 리옹 댄스비에날 2000 - <실크로드>

(IX<sup>ème</sup> Biennale de la Danse de Lyon 2000 - « Les Routes de la Soie »)

- 무용단 : 댄스씨어터 온  
나라 : 한국  
작품제목 : 「달보는 개」, 「테자뷰(Déjà vu)」  
소요시간 : 「달보는 개(30분)」, 「테자뷰(Déjà vu, 42분)」  
창작날짜, 장소 : 「달보는 개」  
1999년 10월. 21회 서울국제무용제 (문예회관)  
2000년 6월. 토월극장 (서울)  
2000년 9월. 리옹 댄스비에날 (크와 루스극장, Théâtre de la  
Croix Rousse)  
「테자뷰(Déjà vu)」  
2000년 9월. 리옹 댄스비에날 (크와 루스극장, Théâtre de la  
Croix Rousse)
- 예술감독 : 홍승엽  
출연자 : 댄스씨어터 온 무용수들  
음악(녹음) : 김태건  
조명 : 천세기  
의상 : 홍인수  
무대 : 임진순  
공동제작 : CID-Unesco, Biennale de la Danse  
후원 : 문화관광부

## Abstract

### The Critical Reception of Korean Contemporary Dance

Sunmyung OH

Ph.D Paris VIII University

Professor of Dance Seoul Art College

In 1990's,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Bagnole Saint-Denis, renowned as one of the highly valued festivals in Europe, was the major stages where the Korean contemporary dances began to uncover its' veil before it attracted international viewers at the 2000 Dance Biennale in Lyon.

Choreographies staged at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Bagnole Saint-Denis in 1990's are 'Ssit-Kim'(1992), 'The Empty Space'(1994), 'The 11th Shadow'(1998) by Ahb Ae-soon Dance Group which has been called as forerunner in the Korean contemporary dance scene., 'Love, far away' by Kim Won's Dance troupe and 'Warning Moon' 1996) by Lee Yun-kyung Dance Group. 'Moon Looking Dog' and 'Déjà vu' of Dance Theatre On were invited to the stages of Lyon Dance Biennale.

For the European Viewers, those dances have been considered as creative ones with new style but as of the having ritual, spiritual, folklore or religious theme well matched with traditional or classic musics. In brief, they were reflecting the modernity of the Orient. Accordingly, encounter between European audiences and contemporary dances from 'the country of morning calm' was not simply contradictory so called modernity of the West vs. tradition of the Oriental culture.

Then, how do the Europeans view Korean contemporary dances exposed at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Bagnole Saint-Denis and Lyon Dance Biennale? On what elements are they focusing? At the Bagnole stages, contemporary dances groups explored modernity implemented in the Korean sentiment combining with tradition of its own but in Lyon, they unveiled their own individual thoughts rather than unique feeling of the Koreans.

**keywords:** Korean Contemporary Dance(한국현대무용),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Saint-Denis(바놀레 국제안무대회), Lyon Dance Biennale(리옹댄스비에날), Modernity(현대성), Tradition(전통)